Dordt Digital Collections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5-2017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 작성 / Establishing Core Curriculum at Christian Colleges in the Mission Fields

Jay Shim
Dordt College, jay.shim@dordt.edu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

Part of the Christianity Commons, and the Curriculum and Instruction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Shim, J. (2017).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 작성 / Establishing Core Curriculum at Christian Colleges in the Mission Fields. Retrieved from https://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969

This Article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Dordt Digital Collections.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Faculty Work Comprehensive List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ordt Digital Collection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grid.mulder@dordt.edu.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 작성 / Establishing Core Curriculum at Christian Colleges in the Mission Fields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establishing Christian core-curriculum from a Reformed point of view (the paper also uses the term “college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mission fields. The paper explores definition, content, and uses of core-curriculum, and relevant issues that must be deal with for the formation of it in the situation of the mission field. It also provides a plan and roadmap for the formation of three core-curriculum for PAUA member institutions. Faith and education/knowledge are two different tasks. From a Reformed view of life-system, however, they are considered to be structured and functioning under the same principle that is governed by Christ’s sovereignty in the world. The principle of faith governs the content, direction, and purpose of education and knowledge. The foundational step of applying this Christian education is formation of core-curriculum. Christian core-curriculum purposes to cultivate Christian perspective of thinking and performing scholarship in the world (ability to shape Christian worldview and interpret things of the world); to introduce research methods with which students examine and learn about essential parts of life and world (academic ability); and to nurture in the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and live creatively as redeemed image of God in His world (Christian attitude for life).

Keywords

Christian education, Reformed theology, universities and colleges, missions, worldview

Disciplines

Christianity | Curriculum and Instruction

Com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Leadership Conference of PAUA (Pan Asian African Universities Association) in Seoul, Korea, in May 2017.

This article is available at Dordt Digital Collections: https://digitalcollections.dordt.edu/faculty_work/969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 작성[1]

심재승 교수
Dordt College, USA

학교를 세워서 실행하는 교육선교는 최근 20 년동안 한국의 해외선교에 주목할만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열정이 교육에 대한 사회의 열정과 결합하여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그것은 또한 재물, 지식과 교육이 국제화하고 다량화되어가는 (globalization and massification) 국제적인 추세에서 볼 때에도, 그러한 추세가 선교나 교육에 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학원선교는 최근 경향의 일부라고 하겠다. 한국인의 교육선교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추세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국제적인 추세를 비추어 볼 때에 한국의 교육선교가 담당하는 위치와 책임이 큼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돕는 기구 중에 IAPC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라는 기구가 있다. IAPCHE 는 개혁주의 시각으로 형성한 기독교 대학교육을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 소개하면서, 현재는 상당히 많은 대학과 개인을 멤버로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가 되었다. 이것은 PAUA 와 회원대학들이 참여하여 유익을 주고 받을만한 좋은 동역기관이다. 그 IAPCHE 국제대회가 지난 2006 년도에 니카라과에서 모여 전세계의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좋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그 때 Joel Carpenter 가 closing keynote 를 하면서 대회중에 발표되었던 페이퍼들을 분석하고 두드러진 주제들을 언급하였다.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교육과 재물의 국제화였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주무대가 유럽과 북미로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져 왔다는 인식이었다. 이전에 이 지역들은 유럽과 북미의 선교 대상이었고 오랫동안 그들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였는데, 이제는 교회의 수효나 역량으로 볼 때에 기독교의 주무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외형적인 수효나 크기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북미와 유럽의 기독교가 그들의 기독교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파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아시아의 기독교"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논할만큼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였다. 그러한 기독교의 내용에 기초한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황에 접목시킨 서구식 선교 교육의 수준으로부터 성장하여서, 기독교 교육 자체의 내용과 실천에 관한 수준높은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학자와 교사들의 발표 내용이 기독교 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이나 서구식 교육을 선교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교지 문화에 대한 분석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발생하는 교육 전반에 관하여 수준높은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들이 서구식 기독교 교육을 수입해서 연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의 발표에는 서구의 기독교 교육계에서 시작되고 논의되던 내용들이 선교지에서 적용되고 확인된 것도 있지만, 그들의 환경에서, 그리고 빠르게 국제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기독교적으로 잘 정리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1] 본 논문은 2017 년 1 월 5 일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제 2 차 PAUA Forum 에 발표되었다.

보여준다. 바야흐로 기독교에 관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서구가 배우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Carpenter 는 말하고 있다.[2]

2016 년도 여름에 또 하나의 IAPCHE 국제대회가 한국에서 모였다. 저자가 거기서 PAUA 의 사역을 발표하면서 회원대학들의 설립목적와 현재 위치,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소개하였다. 그 때 IAPCHE 의 여러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PAUA 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였다. 그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사람들의 선교에 관하여는 많이 들었는데, 선교지에서 기독교 대학을 운영한다는 처음 듣는 소식 때문이었다. 먼저 언급한 2006 년도 니카라과 IAPCHE 대회에서도 한국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기독교 대학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한국 선교사의 수효가 많고 한국에 IAPCHE 멤버 대학교와 개인 멤버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교육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사람이 실천하는 선교지의 기독교 교육이, 그리고 대학교육이 선교의 두드러진 하나의 패턴이 된 현재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위에 언급한 Carpenter 의 판단,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선교와 기독교 교육의 주무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염두에 둘 때에, 한국사람이 선교지에 기독교 대학을 많이 세워서 운영한다는 현상이 가지는 책임의 의미가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대학선교의 추세는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소명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두드러진다. PAUA 에 속한 대학들이 현지에서 펼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그리고 현지 사회에 적합하게 훈련된 실력있고 정직한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사명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매우 필요한 목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현지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위치와 사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람이 수행하는 기독교 교육의 위치와 사명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교육의 기독교적 성격과 그 위에 실천되는 교육 내용의 우수성이 그러한 사명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이 열심과 헌신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사명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갖추어진 교육이라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목표는 선교와 대학이라는 두 개체의 정체성과 그 사이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 그 이유는 선교지의 PAUA 기독교 대학이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학문을 교육하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에, 선교와 일반학문은 원리와 내용이 서로 다른 두 개체이기 때문에, 그 둘의 결합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 교육이 선교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효과있는 접촉점이 되므로, 교육 선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자체가 선교와 매우 다른 분야일뿐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막대한 경제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고, 또한 주어진 문화와 언어에 적합할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갖추어진 교수 자원을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육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에 대학을 통한 선교가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인지도 고민하게 만든다. 열심과 비전은 높으나 국내에서도 부작용이 많은 한국식 교육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선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기독교 대학이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하려면 교육의 기독교적인 성격, 즉 대학의 정체성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과 선교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그렇게 구성된 커리큘럼의 충실한 실천으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여야 한다.

---

[2] Joel Carpenter, "Christian Higher Education as a Worldwide Movement,"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Context: Implications for Curriculum, Pedagogy, and Administration,* Proceedings of the IAPCHE Conference in Nicaragua, 2006, Dordt College Press, 2008, pp. 337-52.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육 모델: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이 페이퍼는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목표인 복음의 선교와 학문의 우수성을 갖춘 정직한 현지 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지난 2 년동안 PAUA 대회에서 발표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대학들로 하여금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게 하는 기초인 기독교 core-curriculum 의 필요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저자는 지난 발표들에서 성경의 구속사 해석을 바탕으로 선교지 기독교 대학이 "선교를 위한 교육" 모델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선교와 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두 개체를 연결하는데, 하나를 위하여 다른 하나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렇게 교육이 진행될 때 그 둘 사이의 서로 다른 원리, 즉 세상적인 교육의 원리와 선교를 위한 기독교의 원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그 결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원론적인 모델이다. 이원론적인 시각에서 선교를 선택할 경우의 기독교 대학은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좁게 정의되는 영혼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적인 기독교 대학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교육을 선택할 경우에 기독교 대학은 세상적인 원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목상의 기독교 대학일 수 있다. 채플과 성경과목을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 교육을 가르치면서 명문을 추구하는 기독교 대학일 수 있다.

서구의 수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하였다가 후에 명목상의 기독교 대학, 몇몇은 명문대학으로 남게된 예는 선교지 대학에도 경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지식/교육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타의에 의하여든 스스로든 이원론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원리 위에 세워진 지식 자체가 느슨한 이원론적인 연결을 허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였거나 대학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욕심으로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적일 수 있는 근거는 지식/교육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교육을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둘 사이의 이원론적인 연결은 "기독교 대학"이라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독교"는 형용사로 대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독교적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교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은 지식과 신앙, 교육과 선교 사이의 관계를 통합된 하나의 기독교 체계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그 통합된 체계는 창조와 구속이라는 광범위한 구속사의 전개가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사고와 삶의 체계이다. 선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죄로 망가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구속이 새 창조로 회복하는 구속사는 세상 전체를 포함한다. 성경의 구속사가 계시하는 구속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창조세계를 성취하시는 것이다. 그러한 광범위한 구속 안에 사람의 구속의 의미와 위치와 목적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믿어서 받는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무엇을 믿는가를 규정하는 신앙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한다. 그것의 핵심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종교적인 법규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새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하여서 믿는 사람의 전인간과 전체 삶을 새로운 인간으로 사는 삶의 체계를 요구한다. 개인적이고 영적인 인간의 구원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구원은 창조로 시작하여 새창조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속사 안에서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형성되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기독교적인 삶의 체계 안에서 선교와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통의 목표 아래 조화를 이루며 각각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교육은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있으나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새생명의 경건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문과 지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교육과 학문 자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 자체가 선교의 방향과 목적에 일치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실천되는 선교는 폭넓고 광범위한 선교로써 그와 다른 좁은 의미의 선교와 비교할 수 있다. 좁은 (또는 구원을 위하여 우선적인) 의미와 목적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받는 영혼구원을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한다. 기독교 대학을 이러한 이해로 실천한다면 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교회나 선교단체에 관련된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선교는 그러한 좁은 (또는 우선적인) 의미의 구원을 바탕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실한 백성으로 살게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넓은 (또는 이차적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의미의 선교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넓고 이차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의미의 선교를 기독교 대학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선교단체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기독교 대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선교 방편이다. 이 넓은 의미의 선교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며 활용될 때에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삶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전수하거나, 그 사회에 필요한 정직한 리더쉽을 양성하고, 또는 HIV/Aids 에 관련된 의학적인 기술로 도움을 줄 때에 기독교적인 시각과 내용으로 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좁은 의미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차적인 선교에 머물지 않고, 교육받은 학생들과 전파된 지식들을 통하여 사회전반에 선교를 재생산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통합된 기독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할 수 있는 교육" 모델에서 교육은 선교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모으는 수단이거나 선교하기 위하여 지식을 단순히 매개체로 사용하는 방편이 아니다. 통합된 체계에서 이해되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 학문과 교육을 사명으로 하는 대학으로 인정된다. 기독교 교육 자체가 구원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위치와 사명을 갖는다. 올바른 시각에서 얻어진 세상에 대한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시각 안에서 학문과 지식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며 올바르고 우수한 지식이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은 교육의 우수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새 생명의 경건과 능력은 교육의 우수성을 대체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교육의 우수성을 추구하여야 할 추진력이어야 한다.[3]

이러한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1) 성경과 신학과목은 일반과목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integration within curriculum), (2) 그 뿐 아니라 커리큘럼과 채플, 기숙사와 교내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integration between curriculum and co-curriculum) 통합적인 기독교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

[3] 심재승,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Public Nature of the Gospel and Spirituality," *Pro Rege*, Vol. XLII, No. 4, June, 2014, pp. 22-31; 한글번역, "세계관 신학으로서의 개혁신학: 복음과 영성의 공공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과 복음 활동*, 서울: 합신출판사, 2014, pp. 309-334;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 Joseph Project," 제 8 차 PAUA 컨퍼런스 keynote, 2015; *생명과 선교*, Vol. 1, 2015, pp. 35-83; "선교지 기독교 교육의 실제 의미: '선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 1 차 PAUA Forum, 2016; *생명과 말씀*, Vol. 14, 2016, pp. 63-96.

기독교 core-curriculum 의 형성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은 기독교 core-curriculum (기본 공통과목)을 형성하는 것이다. Core-curriculum 은 한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는 기초과목들의 시리즈이다. 그것은 추구하는 교육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인문적인 지성을 양육하여 세상과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얻으며, 창조적인 학문활동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그것이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교재와 내용으로 공부하며, 그것이 모든 교과과정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과목이기 때문에 전공수업에 임하기 이전에 수강하게 된다.

Core-curriculum 이 어떻게 정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예를 찾아보자. 미국의 공립대학인 Radford University 는 core-curriculum 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Core-curriculum 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을 경험하도록 하여서 그들의 분석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고의 능력을 배양하고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함에 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core-curriculum 과목들은 다양한 학문의 분야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분야들에서 어떻게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는가를 알게 한다."[4]

위의 예로 볼 때에 인문적인 지성의 양육은 "기본적인 학습의 경험"과 "분석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사고의 능력을 배양하고 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터득함"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한 사고와 배움의 기초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하는데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인문적인 지성의 기초와 시각은 일반학문의 원리로 해석되어 다음과 같은 과목들, 소통과 사고와 윤리를 중심으로 한 과목들을 제공한다.

CORE 101: Essentials of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초급 작문과 언어 소통)
CORE 102: Advanced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고급 작문과 언어 소통)
CORE 201: Topics in Critical Inquiry
(공정한 판단을 위한 주제들)
CORE 202: Topics in Ethical Inquiry
(윤리에 관한 주제들)

이러한 네 개의 공통과목 외에 수리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예술 등 다섯 개의 분야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함으로 모두 아홉 개의 core-curriculum 을 수강하게 된다. 일반학문의 원리를 따라서 얻어지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 상호존중, 정직과 도덕적인 고결성, 소통, 봉사, 학문의 우수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하고자 노력한다.

인문과학 안에 문학, 역사, 철학과 종교에 관한 13 과목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수강하면 인문과학적인 core-curriculum 의 요구를 만족하게 된다. 이 한 과목과 네 개의 공통과목 중에서 CORE 201 (공정한 판단을 위한 주제들)과 CORE 202 (윤리에 관한

[4] Radford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ore Curriculum is to give students a foundational learning experience where they improve their ability to think, both critically and analytically, and begin to take possession of the learning process. With few exceptions, Core Curriculum courses introduce students to a broad academic discipline or field of study and teach them how scholars discover and create knowledge in that area." https://www.radford.edu/content/radfordcore/home/academics/courses-and-schedules/core-curriculum.html.

주제들)가 학생들에게 세상과 삶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시각을 제공하는 인문적인 과목이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과목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소통에 관련된 과목들이다.

기독교 대학에서는 같은 목적의 core-curriculum 이 다른 원리, 즉 기독교적인 원리에 따라 형성되고 실천된다. 다음은 위에 언급한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미국 Dordt College 의 예이다.

>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론적인" 지식을 양육하거나 추상적인 지성의 양육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 안에 제자도를 양육하여 그들의 전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데 있다. 돌트칼리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 - 기독교적인 신앙과 제자도가 성숙해진다.
> -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실천한다.
> - 이해력, 기술, 그리고 창조력을 발전시킨다.
> - 성숙하고 순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양육한다.
> - 그들이 사는 시대와 문화에 관하여 기독교적인 분별을 실천한다.
> - 창조세계 전반에 대하여 공의와 청지기직을 실천한다.
> - 그들이 가지는 삶의 위치와 현장에서 담대하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
> 우리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양육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그들의 전체 삶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의 성경공부와 예배에서, 기숙사 친구들과 데이트와 결혼과 같은 관계들에서,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여가와 놀이에 있어서, 교회의 삶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창조세계를 돌보고 사용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시간과 세상을 통틀어 공의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원한다.[5]

Dordt College 는 기독교 Core-curriculum 의 내용과 목적을 신앙과 교육과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일관된 체계 안에서 구성한다. 그러므로 성경이해-신앙-세계관 형성-세상에 대한 지식 교육-문화를 분별함-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관된 하나의 기독교적인 체계 안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 체계에 따라서 Dordt College 는 다음과 같은 core-curriculum 을 개발하였다.

	Proposed Core Program
Pre-disciplinary Foundational: Academic Competencies (수업 이전의 기초적인 학습능력)	0-3 cr: Communication 100: Speaking/Listening **or** CORE 110: Communication and Contemporary Culture 0-4 cr: English 100: Writing for College **or** CORE 120: Composition 0-7 cr: Foreign Language 101-102 0-4 cr: Math 100: Math for College **or** Math 1xx 0-4 cr: Science 100: Science for College
Historical-Redemptive Outlook (역사-구속사적인 시각)	2 cr: CORE 100: Kingdom, Identity, and Calling 3 cr: CORE 140: Roots of Western Worldviews/Culture 3 cr: CORE 145: Modern West in Global Context 3 cr: CORE 150: Biblical Foundations

[5] "GEP Review Team Report: A Core Program for Dordt College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7 년도 2 월, Dordt College.

Contextual Inter-disciplinary (다양한 학문분야를 관련한 지식)	3 cr: CORE 200: Intro to Christian Philosophy 3 cr: CORE 160: Arts 3 cr: CORE 180: Literature 1.5 cr: CORE 130: Health, Sport, and the Body .5 cr: CORE 020-029: Individual .5 cr: CORE 030-039: Fitness .5 cr: CORE 040-049: Team 4-3 cr: CORE 210-219: Unfolding Biotic Creation 3-4 cr: CORE 220-229: Unfolding Physical Creation 3 cr: CORE 250-259: Persons in Community 3 cr: CORE 260-269: Justice and Stewardship 0-3 cr: CORE 270-289: Cross-Cultural Studies
Post-disciplinary (전공과목을 마친 후에)	3 cr: CORE 310-329: Advanced Reformed Thought 3 cr: CORE 399: Calling, Task, and Culture
Total credits	**41-63***

이 core-curriculum 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번째는 대학 입학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마치고 오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입학 사정중에 수강해야 할 내용과 시간이 정해지는 과목들이다. 두번째와 세번째가 1-2 학년에 수강하는 Dordt College 의 핵심이 되는 core-curriculum 으로써 두번째는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시각을 양육하는 인문학적인 다섯 과목이고 세번째는 여러 학문 (또는 삶) 분야를 관련하는 과목들이다. 전자가 삶과 세상을 조망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시각으로 삶과 학문 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그후 전공수업들을 마친 4 학년에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얻은 지식들을 종합하여 삶과 사회에 그리고 직업의 현장에 적용하는 두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1 학년 첫학기를 CORE 100: Kingdom, Identity, and Calling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 그리고 나의 소명)으로 시작하여 전공을 공부한 후에 그와 동일선상에서 성숙하게 풀어내는 CORE 399: Calling, Task, and Culture (나의 소명, 책임, 그리고 삶의 문화)로 4 학년을 마친다.

위에 열거된 core-curriculum 의 구체적인 과목의 내용은 그 대학의 "The Educational Framework of Dordt College"에 설명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점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다: Religious orientation (기독교 영성), Creational structure (창조세계의 구조), Creational development (창조세계의 전개), 그리고 Contemporary response (사회의 필요에 부응함). 이 네 개의 중점 요소들은 core-curriculum 뿐 아니라 모든 일반과목들의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 논리적인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기독교 영성으로 형성된 세계관: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동시에 주님이신 그 분의 통치하에 있음을 아는 것으로 지식은 시작된다. 이러한 영성과 세계관은 성경의 구속사에 의하여 형성된다.
(2) 모든 참된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구조에 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일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법을 창조세계의 구조 안에 두셨다.
(3) 세상의 전개와 인간의 책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의 전개이다. 이러한 전개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람이 사용하여 생기는 일로 그것은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의성과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에 매우 중요하다.

(4) 교육은 사회의 필요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교육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편이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인 지성의 양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동하고 봉사하는 지식이어야 한다.[6]

"이러한 네 개의 필수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인류의 사고와 삶에 관하여 공통적인 주제들과 인류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필수 core-curriculum 은 학생들이 여기 저기서 다양하게 수강한 과목들의 효력보다 훨씬 강력한 기초를 제공한다."[7]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core-curriculum 형성

A. 세 개의 core-curriculum

지금부터는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core-curriculum 을 제안하고, 그것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하자. 위에 언급한 공립대학과 기독교 대학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지 대학도 언어의 소통과 읽기와 쓰기, 문화에 관련된 공통과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 그리고 그에 관련된 윤리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과목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독교 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기독교 인문적인 요소들만 다루기로 하자. 저는 지금까지 제안하였던 바대로, PAUA 회원 대학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core-curriculum 을 우선적으로 형성하여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1) Biblical Foundation (성경적인 기초)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중심되는 구속사를 해설한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 세상 안에서 인간의 위치, 모습과 소명,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해설하므로 학생들이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고백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고에 관련된 건전한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적인 기초를 배우게 한다. 이 과목은 그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신앙고백과 세계관과 전반적인 교육의 근간이 된다.[8]

(2)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기독교 철학의 기초)
Biblical Foundations 의 기초 위에서 선교지 타종교의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기독교적인 사고의 기초, 인간의 본성과 위치, 타종교나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사회와 정의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을 가르치고 동시에 그러한 지식들을 실제로 사회의 이슈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일반은총과 반립이 어떻게 삶과 문화에 적용되는지 토의한다.

(3) Faith and Science (신앙과 학문/과학)
선교지 교육에 있어서 학문과 과학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학문과 과학이 기독교 신앙과 이원론적이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와 구속이라는 기독교의 광범위한 사고의 틀 안에서 각각이 고유한 위치와 사명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통일된 통치 아래서 유기적으로

---

[6] 1993 년도 교수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까지 교과과정을 작성함에 사용되고 있다. 이 네 요소에 대한 선교지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자세한 설명을 다음에서 보라: 심재승,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 Joseph Project," *생명과 선교*, Vol 1., 2015, pp. 73-79.

[7] "GEP Review Team Report: A Core Program for Dordt College in the Twenty-First Century."

[8] 이 페이퍼의 뒤에 Biblical Foundations 와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의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창조와 진화, 과학기술의 역사와 그 사용 등 현대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과학과 학문의 실제 이슈들을 다룬다.

B. Core-curriculum 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려한 사항들

선교지 기독교 대학에서 core-curriculum 을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자.

(1) 선교지의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된 대학의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해야 할 core-curriculum

Core-curriculum 의 내용은 한 대학의 교육 목적에 따라 구성된다. 그래서 core-curriculum 은 선교지 상황에 적합하게 선정된 대학의 정체성, 설립목적, 지도자들의 기독교적 배경과 신앙의 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세계관에 의하여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대학의 정체성과 설립목적은 대학의 mission statement 에 대략적으로 표기되고 core-curriculum 에서 구체화된다.

PAUA 에 속한 대학들이 상세한 배경에서는 다양할지라도 복음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또는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이라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core-curriculum 을 형성하기로 하자. 이러한 교육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해와 신학의 내용, 세계관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교육의 내용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에서 발전하였다. PAUA 에서는 개혁주의적인 기초는 유지하되 선교지 상황에 적합하게 폭을 넓혀서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세워서 많은 대학들이 유익을 얻도록 한다.

선교지 대학에 core-curriculum 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상황에 적응한 커리큘럼을 (contextual curriculum) 작성하는 것이다. 물론 커리큘럼은 교육의 방편이고 실제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것은 교수이기 때문에 선교지 문화에 적응된 교수법도 커리큘럼만큼 중요하다. 선교지 문화에 적응된 교수법은 다음 기회에 선교지들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선교지 대학에 적합한 core-curriculum 을 다루기로 한다.

IAPCHE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의 상황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설명하면서 Rajuili 는 교육학자인 E. W. Eisner 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하고 있다. 첫번째는 "모든 장소에서 모두에게 언제나 적합한 교육을 실현할 하나의 개념이나 목표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면서 개정해야 한다. 두번째, 커리큘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explicit curriculum (명백한 커리큘럼), implicit curriculum (암시된 커리큘럼), 그리고 null curriculum (존재하지 않는 커리큘럼). "명백한 커리큘럼"은 출판된 교과서들로 과목의 목적에 따라 분명하게 정리된 내용을 담고 있다. Core-curriculum 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과 내용이 여기 담겨진다. 그러나 "명백한 커리큘럼"이 대학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한다. "암시된 커리큘럼"은 "명백한 커리큘럼"에 명문화되어서 포함되지는 않은 가르침으로써, 대학의 사용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오래 지속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요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세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커리큘럼"은 대학이 누락한 커리큘럼을 의미한다. 이 요소는 커리큘럼의 평가 과정에서 드러나는 필요한 것들로 개정된 커리큘럼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9]

[9] Moshe Rajuili, "Developing a curriculum, employing a pedagogy, and an administra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that addresses competing worldview in Southern Africa,"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Context*, IAPCHE International Congress, Dordt College Press, 2006, pp. 84-85; E.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s Programs*, 2nd ed., New York: Macmillan, 1985, pp. 87-88.

위에 언급한 core-curriculum 의 세 가지 요소는 선교지의 정치, 종교와 문화 상황이 복음선교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core-curriculum 을 구성하고 사용하는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명백한 커리큘럼"은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시각에서 잘 정리되어 분명하게 작성된 (a) Biblical Foundations 의 한글 교재 (교수양성 프로그램용)와 (b) 그것을 영어로 풀어쓴 학생용 교과서를 의미할 수 있다. 학생용 교과서의 경우는 복음선교에 자유로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암시된 커리큘럼"은 PAUA 대학에서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암시된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때에 학생들은 대학의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것은 주로 대학의 학풍으로 인식되고 전통으로 이어진다. 그 목적이 선교일 수도, 직업교육일 수도, 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지도자 양성일 수도,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 선교에 자유로운 지역에서 복음선교를 "암시된 커리큘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강의실에서, 특별히 채플을 활용하여, 그리고 교과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제시하는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실천할 수 있다. 둘째, 보안지역의 대학에서는 "명백한 커리큘럼"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복음선교가 중요한 목적일 경우에 잘 준비된 "암시된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보안이 엄격한 지역에서는 "암시된"보다는 "숨겨진 커리큘럼" (hidden curriculum)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이런 경우 성경의 이해-신앙고백-일반학문의 강의-기독교 신앙의 변증-문화에 적합한 접촉점 등에 관련하여 교수 양성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 기독교 세계관적인 사항: 교육과 선교 사이, core-currculum 과 전체 교과과정 사이의 일관된 기독교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일

기독교 core-curriculum 이 모든 교과과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과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기독교적인 인문적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체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인 시각, 즉 세상과 인간 삶을 성경의 구속사 안에서 조망하고 해석하는 시각,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문화를 분별하고, 세상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탐구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형성한다는 것은 신학과목을 포함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연과학에서 제공하는 core-curriculum 의 경우에도 그 분야의 기초되는 과목을 제공한다는 말이 아니다. Dordt College 는 자연과학 분야의 core-curriculum 으로 CORE 210-219: Unfolding Biotic Creation (생체창조계의 전개)와 CORE 220-229: Unfolding Physical Creation (물리창조계의 전개)를 제공한다. 자연과학에서 제공하는 core-curriculum 은 우선 인문적인 시각에서, Dordt College 의 경우에 Biblical Foundations 이 가르치는 시각으로 시작한다. 모든 지식들이 창조의 구조와 전개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가지는 위치와 목적을 다루고, 그 분야에 고유한 데이터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방편과, 얻은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에 창조와 진화를 다루되, 신앙고백적으로 또는 교조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논리가 담고 있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와 증거들을 학문적으로 다룬다. 이 과목이 신앙고백 시간이 아니라 자연과학 시간이기 때문이다. 창조와 진화 외에 현재 자연과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태계라던가 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들을 다룬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제공하는 core-curriculum 은 성경해석과 인문적 시각으로 시작하여, 자연과학적인 전공을 주로 다루되, 문화와 삶과 직업 등을 통합하는 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기독교 core-curriculum 과목은 그 자체로 독특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전문적인 과목이며, 그러므로 성경과목이나 신학과목으로 대체될 것이 아니다. 사실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서도 50-60 년대에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신학과목으로 편성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편성할 때의 기독교 대학의 성격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통합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대학이거나 교회나 선교의 사역이라는 제한된 교과과정을 다루는 대학이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미션스쿨"들과 기독교 대학들이 기본적인 성경과목과 채플을 전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하는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성격이며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될 수 있어도 core-curriculum 으로서의 기독교 기초과목은 되지 못한다. 성경과 일반과목들이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채, 오히려 원리적으로 상반된 내용인채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성경이나 신학과목이 일반 교과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고백적으로 선교지 대학에서 믿지 않는 현지인 학생들에게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의미의 선교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3) 교육과 사회의 현실적인 사항: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과 실제 지식/기술 교육 사이의 관계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세상과 삶을 조망하고 해석하는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과 실제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 사이의 관계와 올바른 밸런스이다. 기독교 대학, 특별히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대학은 주로 미국의 산물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원리로 삶과 세상을 조망하고 해석하는 판단하는 "시각"에 중점을 두어 주로 "기독교 지성"의 양육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지난 반세기동안 개혁주의 기독교 대학들은 신앙에 근거한 학문적인 사고의 발달, 기독교 세계관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전공과 주제들에 관하여 지대한 공헌을 이루었다. 올바른 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은 그러한 교육의 실천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깊어진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관련하여 대학별로 많은 자료를 남기고 그 위에 현재의 교과과정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Calvin College 는 기독교 인문교육을 실천해 오면서 1970 년도에 지난 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교과과정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교육 전반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실용주의적 시각의 기독교 교육과 고전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인문교육의 학문" (disciplinary view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상황에서 70 년대는 기독교와 학문/과학이 서로 상반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학문이 세분화되고,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던 시대이다. 이러한 학문과 과학의 이해가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기독교 대학, 특별히 인문적인 시각을 중요시하던 기독교 대학은 교육의 기초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느 기독교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채플을 제공하고 신학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 기독교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커리큘럼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이면에는 학문 자체는 종교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교육은 신앙의 양육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신앙은 세상과 상관이 없거나 또는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만 잘 교육하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는 실용주의적인 지식과 기술이 대학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종교과목을 더했을 수도 있다. 어느 판단이던 이러한 교육 인식은 신앙과 세상을 분리하여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alvin College 는 "기독교 인문교육의 학문"이라는 표현으로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풀어내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의 시각으로 세상과 삶 전체를 조망하고, 그 안에서 학문의 위치와 사명을 해석하여, 현재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 이것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교육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이다. 이것이 미국의 개혁주의 인문학 중심인 대학의 주된 교육이다.[10]

Calvin College 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통합적인 기독교 지성을 양육하는 기독교 인문대학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지 않았던 60 년대에 개혁주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직업을 찾고 안락한 삶을 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70-80 년대 이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삶을 조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지성의 양육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러한 인문적인 지성 교육으로 기독교 대학의 목적을 다 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학문이 세분화되어 전문직을 얻기 위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독교적인 학자 양성으로 대학의 할 일을 마칠 것인가? 70 년의 Calvin College 의 core-curriculum 문서는 이 주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시각의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적인 통합적인 시각 교육을 받은 "후에" 기술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고 언급하기는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교육의 핵심인 "기독교 인문교육"에 대한 해설을 그러한 인문적인 교육이 자신들의 커뮤니티 안에 주는 유익을 애써 역설하면서 마치고 있다.[11]

현재 Calvin College 의 기독교 교육은 원래 가지고 있던 Developing Christian Mind (기독교 지성의 양육)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훨씬 탄력있게 전공 지식과 기술 교육을 포함하고 또한 세계에 학생들을 보내어 다문화권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1996 년도 Calvin College 의 문서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포함한다. (a)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지식, 이 세상 일들이 발생하는 구조와 전개에 관한 지식,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분별을 포함한다. (b) 지식은 사회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c)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학문의 우수성이 요구된다. 우수성에는 다만 도덕적인 우수성뿐 아니라 기술적인 우수성을 포함해야 한다. (d) 세상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는 합당한 헌신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세상에 감사함이라는 태도로 살고, 청지기로 봉사함, 정의와 진실을 실천하는 헌신이 요구된다.[1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 년대의 Calvin College 의 기독교 교육은 90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그 핵심을 바꾸지 않았다. 달라진 사회환경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기독교적인 시각과 분석에 관한 인문적인 기초에 중점을 두고 세상과 삶에 대한 지식 교육을 더하였다면, 지금은 그러한 기독교 인문적인 기초와 시각 자체가 직접 세상과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소명, 그리고 참여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책임과

---

[10]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Report of the Calvin College Curriculum Study Committee, 1970*, Grand Rapids: Calvin College and Eerdmans, 1970, pp. 47-69.
[11]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Calvin College, p. 66.
[12] *An Expanded Statement of the Mission of Calvin College Vision, Purpose, Commitment*, Calvin College, 1996, pp. 33-34.

소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문과 도덕의 우수성이 강조된다. 또한 그렇게 실천하기 위하여 급속도로 국제화되고 다문화되어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거기서 살고 일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Dordt College 도 동일한 문제, 즉 인문적인 기독교 교육과 실제 삶을 위한 기술과 지식 교육 사이에서 고민하였다. 1993 년도에 작성되어 교수회의에서 채택된 Dordt College 의 교육 문서는 그 문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커리큘럼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배우는 통찰력과 지식을 헌신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은 이론적인 학문의 결과를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 커리큘럼은 현대 삶에 중요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일련의 학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그 분야들에 관련하여 성경적으로 참된 지식과 통찰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독교 커뮤니티의 필요가 충족되고 학생들의 의미있는 관심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커리큘럼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주요한 이슈들을 포함할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진정으로 섬길수 있는 통찰력 (serviceable insight)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전문성으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13]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이 중요한 기초인 것은 명백하지만, 그것으로 교육이 마치지 않고 그러한 기초 위에 얻은 지식과 통찰력은 세상의 올바른 삶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인식이다. Calvin College 와 Dordt College 의 문서는 동일하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헌신, 삶에서의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학적인 발전은 당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의 전개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신앙의 가슴과 지성의 머리로 기독교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인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러한 학문적인 헌신과 태도를 학생들의 비전과 소명으로 삼게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작업이다.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는 현대 젊은이들을 그러한 학문적인 시각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만으로 마치는 교육은 허망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마치는 교육은 허공만 울리는 어설픈 경건과 설교가 되기 쉽다. 올바른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은 인문적인 시각의 교육으로 시작하여, 그러한 시각이 직접 요구하는 바, 배우는 지식과 기술들을 실제 삶과 직업 현장에 섬기는 방편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Dordt College 기독교 교육은 "섬기는 통찰력 (serviceable insight)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적인 슬로건을 어떻게 대학의 커리큘럼에 기독교적으로 충실하게 형상화하여서 현실의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 이다.

Dordt College 는 커리큘럼이 세상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만큼 광범위해야 하되, 실제 우수한 학문에 도달하기 위하여 충분히 집중된 교육이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이슈는 대학 차원에서 사회의 필요를 따라서 전공에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고, 또한 학문의 목표와 우수성의 정도에 관련한 사안이기도 하다. Dordt College 는 최근에 주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 엔지니어링과 비지니스를 묶어서 Pro-tech project 를 신설하였다. 그들은 몇 년간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학문을 어떻게 사회의 요구에 적합하게 형상화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배출할 것인가를

[13] "The Educational Framework of Dordt College," Dordt College, 1993, Parameters of Curricular Organization 중에서 네번째 요소, p. 6.

논의하였다. 리더쉽은 비지니스와 주정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자연과학부서는 실제 과목을 선정하고, 대학의 core-curriculum 커미티에서 어떻게 기존 core-curriculum 을 그 프로젝트에 적용할 지 논의하고,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루는 여러 차원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존 커리큘럼과 어떻게 동일하거나 달라야 하는가, 특별히 대학의 기독교 커리큘럼이 사회의 필요에 순응하여서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직업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슈로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그 과정을 신설하였다.

기독교적인 인문적 시각의 양육과 실용적인 지식/기술 교육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슈는 위에 길게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실제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 사안은 요즘 크게 대두되는 대학의 큰 두 도전과 관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도전 중의 하나는 입학 학생 수효에 관련된다. 대학에 입학할 학생의 수효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그리고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대학이 기독교적 인문교육을 이전처럼 중요시할 수 있는가는 큰 도전이 된다. 두번째 도전은 대학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명문에 대한 꿈과 관련된다. 사회와의 관계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대학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대학도 그러한 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안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만큼 기독교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문제는 선교지의 기독교 대학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은, 적어도 위에 예로 든 개혁주의 기독교 인문대학에서는, 그들을 지탱하고 후원하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가장 잘 실현된 기독교 교육은 동일한 신앙을 가지는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들 대학에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의 일부는 그 커뮤니티로 돌아가 직업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그 대학에 보낸다. 그 대학들도 다른 모든 대학들처럼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설립되었을 당시의 지원 커뮤니티라는 강력한 후원제도를 아직 향유하고 있다. 그만큼 기독교적인 인문교육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의 기독교 대학에게 이러한 강력한 후원 커뮤니티는 꿈일 것이다. 기독교 교육을 지탱해 주는 환경은 선교지에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 들판에 학교를 세우자마자 믿지 않는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학생들은 좋은 교육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을 양질의 삶을 꿈꾸며 대학에 찾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여야 하고, 배출한 졸업생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와 매우 다른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추구한다면, 기독교적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과 지식/기술의 교육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대학의 올바른 정체성 위에 그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core-curriculum 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게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교육은 선교지 사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선교지 대학도 사회 안에서 명문으로 성장할 꿈을 꾼다.[14]

(4)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형성하기 위한 대학의 제도적인 사안: (a) 위에 열거한,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core-curriculum 을 추구할 지도력과, (b) 그러한 과목을 개발할 팀과, (c) 그러한 과목들을 가르칠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일

[14] 기독교적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과 실용적인 교육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글에서 찾아보라: Arthur F.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Eerdmans, 1975, pp. 32-33, 105-116.

다른 대학에 좋은 core-curriculum 이 있고 좋은 교재와 교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하게 그들이 작업하여 구성한 그들에게 좋은 커리큘럼이다. 그들의 문서와 작업 과정을 연구함으로 그들의 원리를 배울 수는 있으나, 그들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답은 명쾌하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고,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그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목표로 하는 core-curriculum 을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가르칠만한 교수진을 양성하여야 한다.

대학에 core-curriculum 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작업은 대학 리더쉽 차원에서 추진하고 교수들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대학 제도에 관련된 사안이다. 대학의 리더쉽이 확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일이다.

C. PAUA 회원대학들을 위한 Core-curriculum 을 형성하는 로드맵

(1) 현실의 상황

현재 PAUA 에 속한 대학들이 다양한 국가들에, 다양한 사회제도와 문화에 속하여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복음선교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대학들의 기독교적인 신앙과 교단적인 배경이 다양할 것이며 설립자들과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배경도 다양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강의하고 있는 교수진이 한국인과 함께 선교지 현지인도 포함할 것이다. 교수진의 개인적인 성향과 자질도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

(2) 목표로 하는 core-curriculum

세 과목의 core-curriculum (Biblical Foundations,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Faith and Science) 중에서 먼저 Biblical Foundations 를 개발한다. 그 과목이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인 통합적인 교육에 관한 성경적인/신앙적인 기초와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방법과 로드맵

아직 대학들에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또는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인식되거나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먼저 개발하고 출판하는 것은 순서상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얻을 효과를 고려할 때에 적합하지 않다. 교재의 내용이 어떻든 실제로 가르쳐지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이해하는 것이고 효력은 그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서상 우선되어야 할 것은 (a) 각 대학의 지도자들과 교수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또는 통합적인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고 (Biblical Foundations 의 한글교재를 사용하여, PAUA 대회와 포럼을 통하여), (b) 개발하고자 하는 core-curriculum 의 내용으로 가르칠 교수를 양성하는 일이고 (PAUA 연구소의 교수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c) 선교지의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PAUA 회원 대학에 공통될만한 학생용 교재를 개발하는 일이다 (PAUA 연구소의 팀이 선교지 교수들과 협력하여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대학들의 지도자들과 교수들이 대부분 한국인인 것을 감안하여, 한글로 Biblical Foundations 를 집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제가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다. 이 교재가 출판되면 그것을 가지고 PAUA 연구소에서 실천하기로 한 교수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Biblical Foundations 에 포함될 주요내용

이 과목은 저자가 Dordt College 에서 13 년 동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래의 표의 왼쪽에 현재 Dordt College 에서 강의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요약하고, 오른쪽에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독교 교육의 인문적인 시각의 내용을 기술한다. 위에 설명한 기독교적인 인문시각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다.

	Dordt College 의 Biblical Foundations[15]	기독교 교육의 기초가 되는 인문적인 시각의 기초
성경	성경관 해설 성경해석의 기본과 방법 번역본과 성경의 사용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다.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경 이해를 조명하신다. 성경을 창조-타락-구속-완성으로 이해하는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의 구속의 역사로 이해하게 한다.[16]
창조	창조기사의 구조와 가르침 창조된 세상과 인간 세상 안에서 인간의 위치, 모습, 사명: 문화소명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세계의 "구조"와 "전개"에 따라 이루어진다.[17] 성경 이해의 기초에 근거하여: 성경이 창조로 시작하여 새창조로 마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 매우 의미있는 가르침이다. 성경은 이원론적인 세상 해석을 배척하고, 온 세상과 사람의 모든 활동에 미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계시한다. 이것은 사람의 문화, 사고의 형성에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죄/타락	죄의 원인과 본질 죄가 사람과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	죄는 하나님으로 만족치 아니하는 교만으로 시작되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였다. 죄의 결과는 사람이나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변형시켰다. 죄는 사람의 생각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구속의 계획	창 5-9 장: 노아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창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구속의 계획을 예시한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을 올바로 세우심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창조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언약	창 11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는 구속계획 열국의 아비와 어미 언약의 본질과 기능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구속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불리워져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언어들에 전파되어야 한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도구로써 약속을 포함하며 따라서 후대의 역사에 성취될 것을 예견한다. 그러므로 구속역사는 기본적으로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다림과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긴장 (약속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 사이의)을 포함한다. 이러한

[15] 심재승, Dordt College 에서 강의하는 Biblical Foundations Workbook, 2017 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16] 이렇게 이해되는 "기독교 영성과 세계관"은 Dordt College 의 기독교 커리큘럼의 내용을 형성하는 네 개의 주요 요소중의 첫번째 것이다.

[17] "창조세계의 구조"와 "창조세계의 전개"는 Dordt College 의 기독교 커리큘럼의 내용을 형성하는 네 개의 주요 요소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것이다.

		구속역사의 본질은 인류 역사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율법	율법이 언약에 더해진 이유 율법의 기능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을 위한 언약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율법의 기능을 설명한다 (갈 3:15-25).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 동시에 도덕율법은 위에 언급한 구속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종들: 제사장, 왕, 선지자 라합과 룻: 모든 민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불충실한 이스라엘 메시아에 관한 약속: 의로운 왕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는 누구신가? - 구약의 배경으로 메시아 - 니케아 신조 예수는 어떠한 구속을 이루시는가? - 순종의 삶, 죽음과 부활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도덕 율법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요구된다.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은 믿는 개인의 구속을 통하여 만물의 화목으로 연장된다.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왕의 권위와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비유의 해석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세상"에 대한 이해 성령의 역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영성[18]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왕으로 오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거기 순수한 복음과 영성이 살아 작동하여야 한다. 새 생명의 경건과 능력은 생각으로 연장되어 삶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삶의 가장 광범위한 의미는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의미와 소명: 교육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문화소명을 실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창조에 밀접하게 관련된 구속은 지식을 얻는 기쁨을 주고 지식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올바른 교육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19]

[18]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와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Dordt College 교육 구성 요소중 첫번째 요소이다.

[19] Dordt College 교육 구성요소 네 개중 마지막 요소, "사회의 필요에 부응함"에 해당된다.

		교육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문화소명의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창조성, 책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선교사명과 문화소명은 동일한 구속의 계획 아래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두 개의 사명이다.
바울서신	구약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해석함 구원받는 방편: 믿음과 은혜 교회의 위치와 사명 복음과 율법 구원과 선행, 선한 삶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사용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자유롭게 포기하도록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극적인 예.
새하늘과 새땅에 대한 소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예루살렘 현재 세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관계 “종말론적 긴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요한 계시록의 의미와 위치 그리스도의 재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이 완성되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현재의 삶: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억되고 의미를 갖는다. 만물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러 완성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삶에 안식과 평안을 주고,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Biblical Foundations 의 구조와 내용은 현재 집필하고 있는 한글 교재에 상세하게 반영될 것이다. 그 내용은 교수 양성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고, 선교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생용 교재에 적용될 것이다.

아래는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에 대한 구조와 내용이다. 왼쪽이 현재 Dordt College 의 커리큘럼이고 오른쪽이 예상하고 있는 PAUA 대학의 내용이다.

	Dordt College CORE 200 Introduction to Chr Philosophy	PAUA Introduction to Chr Philosophy
문화이해		선교지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르침에 있어서 선교지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기독교적인 사고의 기초	무신론적인 주장: - William K. Clifford - Bertrand Russell 기독교적인 주장: - Norman Malcolm, William James, Jay Shim, John Calvin, Herman Bavinck, Reformed epistemology, Alvin Plantinga, Nicholas Wolterstorff	선교지 종교와 문화의 배경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변증, 문화적이고 목회적인 변증을 포함하여. 서구 사상의 역사를 활용하되 선교지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적용할 것.
인간의 본질	무신론적 진화론의 주장: - Richard Dawkins 고전 헬라 철학 - Plato	서구 사상의 역사를 활용하되 선교지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적용할 것.

	기독교 고전 - Augustine 성경의 가르침 - Jay Shim, Robert Gundry, John Cooper, James H. Olthuis	
삶과 문화	기독교와 문화의 상관관계 - Richard Niebuhr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 John Van Sloten -일반은총과 반립의 실예 정의에 관한 이슈 - Katongole & Rice - Punitive and restorative ideas of justice	서구 사상의 역사와 현재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되 선교지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적용할 것.
학생들의 연구 발표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들에 관하여 - Non-neutrality of software, Thinking about power, Finding truth, Faith and music, Faces of relativism, Homosexuality, gender issues, women in religions, faith and popular culture, immigration law, C.S. Lewis' apologetics, concepts of love, gospel in TV cartoon figures, human nature in Chinese philosophy, Caveman's experience in Plato, biblical feminism, etc	

결론

선교지에서 기독교 교육을 통합적인 기독교의 시각으로, PAUA 의 표현으로 하면, "선교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각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많은 배움과 창조적인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한국인의 선교사역에 작은 학교를 통하여 선교하거나 신학교를 사용하여 선교지의 교회 지도자를 개발하는 사역은 있어 왔으나, 대학교라는 큰 스케일의 학원선교는 최근의 경향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에 그러한 모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도 미흡하였다. 무엇보다 기독교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많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령께서 한국인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교육 자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그것을 실행할 창조적인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학을 통한 선교는 국제화하고 다량화하는 현대 교육의 추세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식을 접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IT 기술을 접목하면 선교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전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이러한 현대적인 특징은 교육공학적인 효과를 우선시하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활용되고 있다. 지식을 가치중립적이고 실용적인 데이터로 이해하고, 교육을 지식과 데이터의 전달로 보면서, 특별히 많은 지식을 효과적이고 흥미있게 전달하는 표현양식을 중요시였다. 지식과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문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매우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한다던지, 세상과

삶을 조망하고 해석하는 인문적인 분별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현대 교육"은 "옳은 교육"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모든 현대 교육이 그렇듯이 선교지의 기독교 대학도 문명의 유익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도구들과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현대적인 대학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그리고 현대적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지 모른다. 도구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대 교육공학적인 도구들 자체와 그 사용이 전제로 하는 가치체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형성하는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과 삶을 올바로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식은 원래 특정한 가치체계 또는 세계관으로부터 형성된 세상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형성단계로부터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지식은 특정한 시각으로부터 형성되는 세상에 대한 해석의 결론이다. 지식은 세상의 운용에 대한 실용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하나의 지식체계가 모든 해석의 시각들에 일치하지도 않고 동일한 결론으로 이르지도 않는다. 포스트모던 문화 안에서 다양한 시각의 체계들이 생성하는 방대한 지식들은 가히 지식과 정보의 홍수 또는 폭발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적인 시각을 옳게 형성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기독교 대학이 대학이고자 하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인간을 올바로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의 그룹이 바로 기독교 core-curriculum 이다. 기독교 core-curriculum 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과 신학과목을 포함하므로 배양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가장 넓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의 세상에 세우셔서 그의 세상을 올바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역이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와 개발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변화와 개발은 지식과 데이터를 전달하기 이전의 단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그 근본적인 단계는 복음의 능력으로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와 세계관의 형성이다. 영적인 변화와 세계관의 형성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다.[20] 모든 기독교 대학에서 그렇지만, 대학의 신앙 공동체가 외부의 주류 문화와 상이한 선교지의 대학 환경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필수적인 환경이다. 신앙 공동체의 사회적인 필요성과 함께 대학생 나이에 겪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시각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의 요구는 커진다. 그러므로 기독교 대학에서 core-curriculum 에 적응하는 co-curriculum 의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Core-curriculum 이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과과정을 형성하는 기본이라면, co-curriculum 은 그러한 기초 위에 운영하는 학생 주거와 학생활동으로 채플, 기숙사와 교내활동을 담당한다. 이 둘은 하나의 기독교 체계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세우는 큰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근본되는 기초는 core-curriculum 이다. 그것이 한 대학의 정체성과 그 대학의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학의 정체성과 목표가 대학의 삶에 적용되는 분야가 co-curriculum 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core-curriculum 의 필요와 그것이 의미하는 정의와 그것이 사용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PAUA 회원대학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 과목을 제시하고

[20] Holmes 는 대학 공동체가 지성, 신앙과 품성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 공동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pp. 93-104.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PAUA 본부의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회원대학들의 참여이다.

참고문헌

Joel Carpenter, "Christian Higher Education as a Worldwide Movement,"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Context: Implications for Curriculum, Pedagogy, and Administration,* Proceedings of the IAPCHE Conference in Nicaragua, 2006, Dordt College Press, 2008.

E.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s Programs*, 2nd ed., New York: Macmillan, 1985.

Arthur F. Holmes, *The Idea of a Christian College*, Grand Rapids: Eerdmans, 1975.

Moshe Rajuili, "Developing a curriculum, employing a pedagogy, and an administra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that addresses competing worldview in Southern Africa,"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the Global Context*, IAPCHE International Congress, Dordt College Press, 2006.

Calvin College and Eerdmans,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Report of the Calvin College Curriculum Study Committee, 1970*, Grand Rapids: 1970.

Calvin College, *An Expanded Statement of the Mission of Calvin College Vision, Purpose, Commitment*, 1996.

Dordt College, "The Educational Framework of Dordt College," Parameters of Curricular Organization, 1993.

_____ "GEP Review Team Report: A Core Program for Dordt College in the Twenty-First Century," February 2007.

Radford University, Description of core-curriculum, https://www.radford.edu/content/radfordcore/home/academics/courses-and-schedules/core-curriculum.html.

심재승,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Public Nature of the Gospel and Spirituality," *Pro Rege*, Vol. XLII, No. 4, June, 2014, pp. 22-31; 한글번역, "세계관 신학으로서의 개혁신학: 복음과 영성의 공공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학과 복음 활동*, 서울: 합신출판사, 2014, pp. 309-334; "선교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 Joseph Project," 제 8 차 PAUA 컨퍼런스 keynote, 2015; *생명과 선교*, Vol. 1, 2015, pp. 35-83; "선교지 기독교 교육의 실제 의미: '선교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 1 차 PAUA Forum, 2016; *생명과 말씀*, Vol. 14, 2016, pp. 63-96.

한글 초록

본 논문은 개혁주의의 시각 (본 논문의 언어로 “선교할 수 있는 대학 교육”)에서 형성하는 선교지 기독교 대학을 위한 core-curriculum 의 정의, 내용, 사용,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은 또한 PAUA (범아시아-아프리카 대학협의회) 회원대학에 세 개의 과목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을 제공한다. 개혁주의의 삶의 체계 안에서 신앙과 교육/지식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두 개의 다른 기능이다. 따라서 신앙의 원리는 교육과 지식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을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기독교 대학에 실천되는 기초가 core-curriculum 이다. 기독교 core-curriculum 은 기독교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출발점이다. 기독교 core-curriculum 은 세상에서 학문과 사고하기 위한 시각을 양육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현대 삶에 필수적인 지식 분야를 연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학습능력),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속된 그의 형상으로 소통하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배양함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에 목적을 둔다.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형성함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있다. 첫째로, 분명하게 정선된 대학의 정체성과 설립목적을 선교지의 상황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core-curriculum 을 형성하여야 한다. 대학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 그것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교과과정과 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적으로 구체화할만하게 분명하게 정리된 정체성과 교육의 목표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독교 core-curriculum 의 내용과 목적은 성경과목이나 신학과목을 가르침으로 또는 채플을 교육에 포함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전문적인 기독교 학문 분야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지도부는 전체 커리큘럼 안에서 core-curriculum 이 가지는 위치와 기능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과목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인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세상과 삶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인문적인 시각의 양육과 직업에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을 다루는 교육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여야 한다. 기독교 대학은 교육을 직업훈련으로 이해하는 오래 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선교지 환경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다. 그 둘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화목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정립된다. 이러한 관계 인식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형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이러한 이슈들의 실현여부는 각 대학 지도부가 가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다.

PAUA 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목적으로 고안된 기독교 core-corriculum 을 선교지 대학에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과목을 작성한다: (1) Biblical Foundations, (2)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3) Faith and Science. 처음 두 과목은 현재 저자가 미국의 개혁주의 기독교 대학인 Dordt College 에서 강의하고 있는 core-curriculum 이다. 이 두 과목의 대략의 내용을 본 논문에 포함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선교지의 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재와 함께 건전한 기독교 지식과 자질을 갖춘 교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 core-curriculum 을 원하는 바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들은 그러한 과목을 작성하기 적합한 전문인력과 담당교수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establishing Christian core-curriculum from a Reformed point of view (the paper also uses the term "college education that enables mission")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mission fields. The paper explores definition, content, and uses of core-curriculum, and relevant issues that must be deal with for the formation of it in the situation of the mission field. It also provides a plan and roadmap for the formation of three core-curriculum for PAUA member institutions. Faith and education/knowledge are two different tasks. From a Reformed view of life-system, however, they are considered to be structured and functioning under the same principle that is governed by Christ's sovereignty in the world. The principle of faith governs the content, direction, and purpose of education and knowledge. The foundational step of applying this Christian education is formation of core-curriculum. Christian core-curriculum purposes to cultivate Christian perspective of thinking and performing scholarship in the world (ability to shape Christian worldview and interpret things of the world); to introduce research methods with which students examine and learn about essential parts of life and world (academic ability); and to nurture in the students ability to communicate and live creatively as redeemed image of God in His world (Christian attitude for life).

There are significant issues vis-à-vis establishing core-curriculum in the mission fields. First, core-curriculum is to be established upon a clearly articulated identity of college that is accommodated to the situation of the mission fields. College education provides a diverse and complicated curriculum. Leaders face many problems and challenges regarding forming curriculum and educating students. It is essential for the leaders to clearly understand the identity of the college and purpose of education in order to properly handle them. Second, Christian core-curriculum in its unique nature and content is a specialized curriculum that cannot be replaced or complemented by courses on the Bible or theology or addition of chapel. The college leadership needs to understand not only the distinctive place and task of core-curriculum within the whole college education but also how the core-curriculum relates to other parts of education. For the whole curriculum may be differently structured depending on the kind of Christian worldview and style of faith the leadership occupies. Third, it is essential to critical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pectival education of interpreting world and life on the one hand and practical education for living on the other. Christian colleges face the long-standing challenge of understanding education as vocational training. This challenge may be more aggressive in the mission fields.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found in the biblical redemption in which Christ reconciles all things of creation.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demands Christians to be stewardly responsible for the world. Lastly, whether all the issues regarding formation of Christian core-curriculum actually lead to fruition depends on the width and depth of the leadership's understanding of Christian education and its commitment to its realization.

PAUA is committed to applying above-mentioned principle of Christian education by producing three courses of core-curriculum: (1) Biblical Foundations, (2)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3) Faith and Science. The first two courses are part of the core-

curriculum that the author teaches at Dordt College, a Reformed Christian college in the US. This paper includes a rough draft of the two courses. PAUA will attempt to accommodate the material to the Christian colleges in the mission fields. Along with well-designed material good education requires well-equipped instructors. Faculty enrichment program must accompany the project of developing core-curriculum.